

외환리포트

전일동향

전일대비 1.60원 하락한 1,321.80원에 마감

31일 환율은 전일대비 1.60원 하락한 1,321.8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1.40원 하락한 1,322.00원에 개장했다. 간밤 달러 약세 등에 하락 출발한 환율은 1,320원대에서 주로 움직임을 보였다. 장중 중국의 8월 제조업 PM가 예상치를 상회한 후 역외 달러-위안이 하락하면서 달러-원 환율도 1,320.30원까지 레벨을 낮췄다. 다만 수입업체 결제수요 유입에 하락이 제한되며 1,310원대를 하향 돌파하지는 못했다. 오후 장에서 환율은 전장 증가 부근에서 움직임을 보이다 장 마감을 앞두고 달러-위안에 연동하여 하락 폭을 소폭 키운 뒤 1,321.80원에 마감했다. 장중 변동 폭은 4.6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905.02원이다.

전일 달러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1322.00	1324.90	1320.30	1321.80	1322.30

전일 엔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904.72	909.34	903.78	908.11

전일 유로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445.30	1447.23	1431.90	1433.15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1.65	-6.03	-13.84	-29.09
결제환율(수입)	-1.17	-4.72	-11.96	-26.02

*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로 당일자 청약시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

* 해당월 말일(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기준

*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ksure.or.kr/rh-fx/index.do>)에서 확인가능

금일 전망

달러화 반등에...1,320원 중반 중심 등락 예상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2.15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321.80) 대비 3.85원 상승한 1,323.5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유로화 약세로 인한 달러화 반등 및 수입업체 결제수요 유입에 상승이 예상된다. 유로화는 유로존 물가 상승 지속과 경기모멘텀 둔화로 인한 스테그플레이션 우려 영향에 하락했다. 유럽 7월 CPI는 전년대비 5.3% 상승하여 ECB 금리인상에도 물가가 안정화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엔화 강세에도 이와 같은 스테그플레이션 우려를 반영한 유로화 약세에 달러화는 상승 마감하며 간밤 달러인덱스는 전일 장 마감 때보다 약 0.4% 상승한 103.6대 수치를 기록했다. 아울러 역내 수급 상 절대적인 규

모는 결제가 네고에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꾸준한 달러 실수요 유입 또한 금일 환율 상승 분위기를 지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수출업체 이월네고 물량 유입은 상단을 경직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320.00 ~ 1329.00 원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2131.61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3.85원 ↑
	■ 美 다우지수 : 34721.91, -168.33p(-0.48%)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110.5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9627 억원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